

■ 실속 재테크

주가지수연동예금(ELD)

주가하락때 손실 생겨도 원금 보장

글로벌 침체 증시약세 보이는 요즘 가입 적기

지수예측 부담, 목돈 사용 시기 고려해야

예금의 안정성을 누리면서 주식처럼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은 없을까.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기에는 불안하고, 안정적이지만 낮은 금리의 예금에만 매달릴 수도 없는 게 투자자들의 고민이다.

이런 투자자들을 겨냥한 게 주가지수 연동예금(ELD·Equity-Linked Deposit)이다. ELD는 주가지수 상승률에 따라 연 10% 이상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이다.

ELD는 주가연계증권(ELS)과 비슷하지만 '유가증권'인 ELS와 달리 '예금'이다. 원금이 보장되고 5천만원 한도에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ELD는 지수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예금 상품이기 때문에

예 주가가 하락해도 원금손실이 없을 것이다.

◇다양한 수익 보장 상품=국민은행은 최근 1년째 ELD인 'KB 리더스 정기예금 코스피200 10-1호'를 선보였다. 이 가운데 '안정수익 추구형'은 만기 해지시 최저 연 1.0%의 이자가 보장되며 만기 시점의 코스피200 지수가 가입 시점보다 상승하면 6.5%를 지급한다. 상승수익 추구형은 최저 1.0%가 보장되며 지수 상승률이 10% 이상인 경우 9.0%를 제공한다.

'고수익 추구형'은 만기 해지시 지수 상승률이 0% 이상 35% 이하면 최고 연 19.25%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코스피200 지수가 떨어질 때 수익을 내는 '고수익 하락, 보합 중 하락으로 미리

주가지수 연동예금(ELD)

특징	주기가 하락해도 원금손실이 없음
장점	5천만원 한도내 예금자 보호 설계에 따라 다양한 고수익 가능
단점	높이 낮은 상품일 경우 낮은 이자를 적용 주가 예측을 해야하는 부담이 따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을 잘 읽거나 운이 좋다면 정기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예상이 빗나갈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도 전혀 걱정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애기다.

'녹아웃(knock-out)' 형태 상품의 경우 중간에 주가지수가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낮은 이율로 조기 환수된다. 예컨대 코스피200지수가 60% 이내로 상승했을 때는 최고 연 16.5% 금리를 적용하지만 한 번이라도 지수 상승률이 60%를 초과하면 금리가 연 4.5%로 확정되는 식이다. 중도 해지하면 원금 손실 우려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ELD는 고수익 추구보다는 주가 상승을 기대하면서도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고객을 위한 상품"이라며 "상품별로 조건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만큼 꼼꼼히 살펴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백용호(원쪽에서 두번째) 국세청장이 23일 광주지방국세청을 방문해 임성균(“첫번째) 광주청장 간부들과 악수하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 제공)

백용호 국세청장, 광주청 '깜짝방문'

업무보고 생략한 채 사무실 돌며 직원들과 '스킨십'

"권위 탈피... 국민 신뢰 얻도록 노력 해달라" 당부

백용호 국세청장이 23일 광주지방국세청을 전격 방문해 그 배경에 관심이 솔리고 있다.

백 청장은 22일 오후 늦어야 방문 사실을 알린 뒤 다음날 오전 광주지방국세청을 찾았다.

백 청장은 도착후 업무보고조차 받지 않고 청사 17층 조사2국부터 12층에 있는 정보화센터까지 계단을 이용해 순시하며 직원과 대화 시간을 가졌다.

백 청장이 광주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지만, 방문 과정에서 업무보고, 지역 기업인 간담회 등 공식행사는 모두 생략됐다.

국세청 주변에서는 이같은 행보를 관행을 깨려는 백 청장의 스타일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백 청장은 지방국세청이 순방준비에 부담을 느낄 것을 우려해 지난 1월 대구청, 부산청 등을 예고 없이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세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되 권위적인 기관이라는 인

식을 조직 내에서부터 탈피하자는 의중도 담겨 있다는 전언이다.

임성균 광주지방국세청장도 이를 감안해 별도 방문 준비를 하지 않고 현장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데 주력했다고 한다.

백 청장은 이날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면서 화이팅을 함께 외치는가 하면 광주지방국세청 직원식당에서 오찬을 하는 등 소탈한 모습을 보였다.

백 청장은 직원들과의 대화에서 “그동안의 노고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 방문하게 됐는데 앞으로도 국세청이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운 힘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전남 신협 자율통합 바람

건전성 높이고 자산증식 등 '몸집 불리기'

작년 6월 이후 4곳·올 상반기 2곳 움직임

최근 광주·전남지역 신협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통합·합병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23일 신협중앙회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현재 광주·전남지역 신협 조합수는 92개로 지난해 6월 이후 4개 조합이 통·폐합했다.

지난해 10월께 진도 육신신협과 해남신협이 통합, 해남신협으로 새출발한 것을 시작으로 11월에는 영광·전남서부신협이 합병 문장신협을 흡수해 '영광합병 신협'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11월 북구 북동신협이 서구 제일신협을 흡

수합병, '북동신협'으로 간판을 바꿨다.

이들 신협들은 자체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통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세 신협의 경우 부실대출에 의한 누적손실을 털어낼 수 있는 데다 우량조합도 중앙회로부터 적잖은 합병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두 개 신협을 합할 경우 수익기반 강화, 경상비 절감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실제 문장신협과 제일신협의 경우 합병 전 70억 원 가량의 자기자본이 잠식된 상태였지만, 합병 후

자산이 20~30% 증가하는 등 외적 성장과 함께 건전성도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올 상반기에도 1~2개 조합의 통합이 접두지는 등 '짜릿기' 움직임이 활발할 것으로 관측된다.

신협중앙회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현재 2개 조합의 통합이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경상비를 절감하고 수익기반을 다질 수 있는 장점 때문에 통합·합병하는 조합이 늘 것 같다"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정보문화진흥원-바이넥스트창투

지역 문화콘텐츠산업 원스톱 지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

바이넥스트창업투자(BINEXT CAPITAL)와 손을 잡고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오는 25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문화콘텐츠산업

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바이

넥스트창업투자와 업무협약을 체결

한다. 진흥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문화콘텐츠분야 투자조합 결성과 운영에 관한 노하우를 습득하고, 제작지원을 위한 공동 투자도 모색한다. 아울러 문화산업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

치 벤처기업 발굴, 컨설팅, 자금·마케팅 지원 등 원스톱 지원체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성그룹 계열사인 바이넥스트창

업자는 IT, 특히, 섬유패션, 문화산

업 등의 분야에 1천억원 규모의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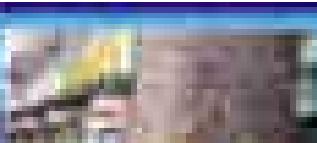
조합을 운영 중이다. 특히 영화, 드라마, 음원, 게임 등 다양한 문화산업분야 전문펀드를 운용하고 있으며, 영화 '화려한 휴가' '타짜' 등 다수의 흥행 작품에 투자해 성공하기도 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좋은 보정기를 쓰셨나요?’

© 2010년 2월 24일 일요일 | © 2010년 2월 24일 일요일 | © 2010년 2월 24일 일요일

국제보정기



본 편 062-227-9940
문래본부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목포점 061-282-9200
목산점 063-851-2422

제주 여행투어의 특별여행

수년만 통번/목포기/관라

제주 여행 투어의 특별여행

제주 여행 투어의 특별여행